

# 김광현, 부캐 '타자' 녹슬지 않은 기량 선보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타격을 소화했다. 기대와 과제를 모두 남겼다.

김광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허리 통증으로 개막 로스터(출전 선수 명단)에 들지 못했던 김광현의 시즌 첫 출격이다.

메이저리그에서 맞는 두 번째 시즌이지만, 처음으로 '9번 타자'로 타석에도 섰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셔널리그에서도 한시적으로 지명타자 제도를 실시했다. 올해는 예전처럼 지명타자 없이 투수가 타격을 한다.

안산공고 시절 팀의 에이스와 4번 타자를 모두 맡아 투타에서 모두 재능을 드러냈던 김광현의 타격 솜씨는 KBO리그 시절 거의 볼 수 없었다. KBO리그에서 3차

## ML 데뷔 후 첫 타격 소화 컨택트·주루 능력 돋보여

레 타석에 나와 2타수 무안타 1볼넷 1타점을 기록했다. 그의 세인트루이스행이 결정된 후 '타자 김광현'의 모습에 대해 기대가 모아기도 했다.

이날 김광현은 팀이 0-1로 뒤진 3회초 첫 타석에 섰다.

필라델피아 선발 맷 무어의 초구를 지켜본 김광현은 2구째 91.6마일(약 147km)의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날카로운 타구를 만들었지만 파울이 됐다. 이후 3구째 커브를 때려 투수 땅볼로 물러났다. 그러나 1루를 향해 전력질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폭발하면서 3회 김광현의 타석이 다시 돌아왔다.

2사 1, 2루 찬스에서 김광현이 두 번째 타석을 맞았다. 무어의 초구가 많이 빠져 김광현의 머리 쪽을 향하는 폭투가 됐다. 그러자 필라델피아는 투수를 조조 로메로로 교체했다.

김광현은 1볼-1스트라이크에서 로메로의 93.3마일(약 150km)의 싱커를 공략, 3루 쪽 깊숙한 땅볼을 쳤다. 3루수 알렉 봄의 짧은 송구를 1루수 리스 호스킨스가 잡지 못하고, 그 사이 빠르게 내달린 김광현이 1루에서 세이프했다. 3루 주자의 득점도 이뤄졌다. 김광현의 내야 안타가 아닌 3루수 실책으로 인정되면서 김광현의 타점이 기록되지는 않았다.

4회 2사 1, 3루에서 다시 김광현의 타석이 돌아왔지만 세인트루이스는 대타를 택했다.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김광현은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오랜만에 타석에 섰지만, 김광현은 어색함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특히 콘택

트 능력과 빠른 발을 과시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다.

그러나 타격 후 투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아쉬웠다. 3회초에만 두 차례 타석에 나선 김광현은 타격 후 배트 울림으로 통증을 느낀 듯 손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3회말 마운드에서 안타 4개를 맞는 등 2실점했다.

김광현은 올해 내셔널리그 경기를 치를 때 계속해서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타석과 마운드를 오가는 '낮선' 리듬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투수 김광현'의 본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18일(한국시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 1회 역투하고 있다.



# 맨시티 4관왕 기대 물거품

## 첼시, FA컵 결승 진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FC가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결승에 오르며 맨체스터 시티의 시즌 4관왕 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첼시는 1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20-2021 FA컵 준결승에서 지예호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FA컵 결승에서 아스날의 벽을 넘지 못했던 첼시는 2017-2018시즌 이후 세 시즌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게 됐다. 시즌 4관왕을 기대했던 맨시티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승점 74로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63)에 크게 앞선 단독 선두 맨시티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리그컵(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한 상태다.

이날 패하지 않았다면 FA컵까지 최대 4개 대회 우승을 노릴 수 있었다.

첼시는 0-0으로 팽팽한 후반 10분 지예호가 티모 베르너의 패스를 선제골로 연결했고,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잘 지켰다.

첼시는 19일 열리는 레스터시티-사우샘프턴의 준결승 승자와 정상을 다툰다. 한편, 맨시티 공격의 핵심 케빈 더 브라운너는 후반 조만 발목 부상으로 교체됐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박히트 뮤직

# 방탄소년단, '방방콘 21'로 전 세계 아미 만나

## 유튜브 통해 라이브 공연 공연 실황 3개 무료 관람

방탄소년단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을 다시 만났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7일 "방탄소년단이 이날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공연 '방방콘 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방콘 21은 과거 개최한 팬미팅과 콘서

트 실황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21'로 올해는 총 3개의 공연 실황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15년 서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2015 BTS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I, BTS 비긴즈' 콘서트로 시작한다. '방탄소년단의 시작(BTS BEGINS)'을 주제로 한 그룹의 탄생과 성장기를 담은 공연이다.

2019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된 팬미팅 '매직샵 1호점'이 이어진다. '위료가 필요할 때 듣는 방탄소년단의 음악, 힐링매직샵'

이라는 콘셉트로 멤버들의 데뷔 초 모습을 재현한 특별 무대와 히트곡 퍼포먼스 등을 만날 수 있다.

같은 해 5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던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콘서트로 '방방콘 21'은 끝을 맺는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 4월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방콘'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당시 약 24시간 동안 조회 수 5059만건

을 기록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 '분노의 질주' 신작 세계 최초 한국서 개봉

## 배급사 '철저한 방역관리 신뢰'

액션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

봉한다. 17일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공개한 개봉 일정에 따르면 5월 19일 한국에서의 개봉을 시작으로 러시아, 홍콩, 레바논 등이 5월 20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가 5월 21일로 개봉 스케줄을 확정했다. 이어 주요 국가로 호주는 6월 17일, 북미 지역은 6월 25일, 영국은 7월 9일, 일본은 8월 6일에 개봉한다.

배급사 유니버설 픽처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수준 높은 방역 의식과 국정의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입어 한국 영화 관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전 세계 50억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거뒀다. 신작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시리즈를 책임지고 있는 빈 디젤을 필두로 저스틴 린 감독과 오리지널 패밀리들의 캠퍼를 화려하게 알린다. 여기에 미셸 로드리게즈, 조나나 브류스터 등 막강한 여성 캐릭터들의 조합과 한국계 배우 성강의 합류까지 더해졌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 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쪽 뺀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